

2010년 4월 5일 보낸 편지입니다.(1,202조회)

희망의 순서
希望の順序

나는 무슨 일이든
私は何事も

순서 매기기를 좋아하는데
順序をつけるのが好きだが

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일은
この世の中には、総てのことが思い通りになることは

별로 없어서 여러 소망 중 한 가지라도 이루면
なく、いろんな希望の中の一つくらいでも成せば

좋다고 생각해야 한다. 그때를 위해 우리는
いいと考えなければならぬ。そのためのために私たちは

항상 희망의 순서를 매겨두어야 한다.
いつも希望の順序をつけておかなければならぬ。

- 소노 아야코의《부부 그 신비한 관계》중에서 -
- 曾野 綾子の<夫婦、その神秘的な関係>より -

* 일에도 순서가 있듯
* 仕事にも順序があるように

꿈과 희망에도 순서가 있습니다.
夢と希望にも順序があります。

먼저 이루어질 것, 나중에 이루어질 것...
まずかなえること、次かなえること

그러나 정작 이루어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.
しかし実際にはかなえることは、順序がありません。

10년 후 이루어 질 것을 꿈꾸었던 일이 '좋은 사람'을 만나
10年後かなうことを夢見たことが'いい人'に会い

1년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, 평생 목표로 삼았던 일이
1年だけでかなったりして、いつも目標に積んでいたことが

'하늘의 도움'으로 하루 아침에 이루기도 합니다.
'天の助け'で、一日で成し遂げたりします。

희망의 순서는 조금할 것 없습니다.
希望の順序は、早急なことはありません。

열심히 잘 살면서 인내하고
一生懸命よく生きながら、耐えて

기다리면 됩니다.
待てばよいのです。

소:망 [所望]

[명사·하다형 타동사] 願い;願望;望み。

매기다

[타동사] 付ける。

<1> [타동사] (値段·等級·順序などを)付ける;きめる。

정:작

<1> [부사] 本当に;実際に;いざ;まさに。

<2> [부사] (名詞的に)本当;本物。

소노 아야코(曾野綾子)

曾野 綾子(その あやこ、1931年(昭和6年)9月17日 -)は、東京都出身の作家。「曾野」とも。本名、三浦知壽子。旧姓、町田。カトリック教徒で洗礼名はマリア・エリザベト。聖心女子大学文学部英文科卒業。2009年10月より日本郵政社外取締役

2010년 4월 6일 보낸 편지입니다.(1,007조회)

사하라 사막
サハラ砂漠

사하라 사막마라톤 당시
サハラ砂漠マラソン当時

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“행복하다” 였다.
私が一番たくさん言った言葉は、“幸せだ”だった

나는 내 능력에 맞춰 즐기며 꿈을 향해 걸었다.
私は、私の能力に合わせて楽しみながら、夢に向かって歩いた

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찢찢했지만 내 머리,
体は、言葉にできない苦痛に途方にくれたが、私の頭

내 가슴은 사람과 세상과 우주를 향해 활짝 열리는
私の胸は、人と世の中と宇宙に向かって大きく開かれる

느낌이었다. 사하라 사막에서 맛본 희열은
感じだった。サハラ砂漠で味わった喜びは

영원히 내 가슴에 남을 것이다.
永遠に私の胸に残るだろう

아직 그에 견줄 수 있는
また、これに比較できる

기쁨은 없었다.
喜びはなかった

- 김효정의《나는 오늘도 사막을 꿈꾼다》중에서 -
- キム・ヒョジョンの<私は今日も砂漠を夢見る>より -

* 사하라 사막!
* サハラ砂漠!

메마름과 고통의 상징입니다.
不毛と苦痛の象徴です

게다가 그곳에서의 마라톤은 극한의 고통입니다.
その上、そこでのマラソンは極限の苦痛です。

그러나 그 극한의 고통 속에 행복과 희열이 묻어 있습니다.
しかし、その極限の苦痛の中に幸せと喜びが埋もれています。

행복은 고통이 만드는 부산물입니다. 고통의 깊이만큼
幸せは、苦痛が作る副産物です。苦痛の深さほど

내 앞에 다가옵니다. 고통을 모르면
(幸せが)私の前に近づいてきます。苦痛を分からなければ

행복이 행복인 줄도 모릅니다.
幸せが、幸せであることも分かりません。

찢찢-매다

<1> [자동사] (切羽詰まったことや難関にぶつかって)途方に暮れる;あわてふためく;窮する;びいびいする。

<2> [자동사] てんてこ舞をする。

활짝

[부사] (広さや開きなどが)限度いっぱいの様子。

<1> [부사] 開け放したさま:一杯;大きく。

희열 [喜悅]

[명사·하다형 자동사] 喜悅;喜ぶこと;喜び。

견주다

<1> [타동사] (二つ以上のものゝ質量などを)比較する;比べる;にらみ合わせる。

<2> [타동사] 競う;張り合う。

메-마르다

<1> {형용사·르 불규칙 활용} (土地が)干からびている;地味がやせている;不毛だ。

<2> {형용사·르 불규칙 활용} (皮膚などが)かさかさしている;やせている;乾いている。

상징 [象徴]

[명사·하다형 타동사] 象徴;ある事象や概念などを想起, 連想させる具体的な事物や感覚的な言葉で置き

換えてあらわすこと, またそのあらわしたもの;シンボル;表象。

2010년 4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.(5,418조회)

격려
激励

인간의 마음은
人間の心は

워낙 섬세하고 예민해서
もともと繊細で鋭敏で

겉으로 드러나게 격려해주어야
表面に表れるように激励してあげると

지쳐 비틀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.
疲れてふらつくことを、防ぐことができる

그런가 하면 또 워낙 굳세고 튼튼해서
そうかと思えば、さらに硬くて、丈夫な

한번 격려를 받으면 분명하고 꾸준하게
1度の激励を受ければ、明らかに堅実に

그 박동을 계속한다.
その拍動を継続する

- 마야 안젤루의《딸에게 보내는 편지》중에서 -
- マヤ・アンジェロウの〈娘に送る手紙〉より -

*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.
* 激励が必要な時代です

시대가 험악하고 지쳐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
時代が、陰悪で、疲れてふらついているためです。

너나없이 우리 모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.
みな、私たち総てにも激励が必要です。

모두가 지쳐 비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.
総てが、疲れてふらついているためです。

길은 하나입니다.
道は一つです。

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.
お互い激励しながら生きることです。

격려 [激勵]
[명사·하다형 타동사] 激励;奮起させること。

워낙

<1> [부사] もともと。

<2> [부사] なにせ;なにしろ;あんまり。

섬세 [纖細]

[명사·하다형 형용사] 纖細。

<1> [명사·하다형 형용사] かばそく優美であること。

걸

[명사] 表;表面;上べ。

드러-나다

[자동사] 現れる;表われる。

<1> [자동사] 見えなかったものが見えてくる;露出する。

비틀-거리다

[자동사] よろめきながら歩く;よろける;よろめく;ふらつく。

튼튼-하다

<1> {형용사·여 불규칙 활용} (体が)丈夫だ;壮健だ;達者だ;すこやかだ;がっちりしている。

<2> {형용사·여 불규칙 활용} (物が)堅固だ;がんじょうだ;しっかりしている;丈夫だ。[작은말] 탄탄하다

꾸준-하다

<1> {형용사·여 불규칙 활용} 粘り強い;しんぼう強い;根気がある;終始一貫している。

<2> {형용사·여 불규칙 활용} 着実だ;手堅い;堅実である。

마야 안젤루 (Maya Angelou)

(マヤ・アンジェロウ)

2010년 4월 8일 보낸 편지입니다.(5,097조회)

마음의 빚
心の借金

지금 이 순간,
今この瞬間

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.
あなたの周りの人々を、思い浮かべてください

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고, 나는 그 사람들을
その人々がどれだけ大切で、私はその人々を

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,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
どれだけ大切に愛しているのか、そしてその人々に

얼마나 많은 마음의 빚을 갖고 있는지 찬찬히
どれだけ多くの心の借金を持っているのか、すこしずつ

생각해 보세요. 사랑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,
考えてみてください。愛だけでも足りない時間に

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, 혹은 나의 알량한
小さく、些細なことのため、もしかして私のつまらない

자존심 때문에, 다투고 화내고 고함치며
自尊心のために、争って、怒って、怒鳴って

서로 미워하기라도 하는 것처럼
お互い憎んだりするように

으르렁댔던 그 순간들을요.
怒鳴ったその瞬間を

- 에릭 블루멘탈의《1% 더 행복해지는 마음사용법》중에서 -
- エリック プラメンソールの<1%さらに幸せになる心の使用法>より -

*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.
* 私たちは、総て借金する者たちです

주변 사람에게서 받은 도움, 내가 진 빚입니다.
周りの人から受ける助け、私が背負った借金です。

내가 받은 사랑, 내가 진 큰 빚입니다.
私が受ける愛、私が私が背負った大きな借金です。

이제 조금씩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.
今少しずつ返しながら、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

'그 사람'을 떠올려 이전보다
'その人'を思い浮かべて以前より

더 많이 사랑하며 사는 것,
さらにたくさん愛しながら生きること

더 많이 감사하는 것,
さらにたくさん感謝すること

그것이 답입니다.
それが答えです。

알랑-하다

{형용사·여 불규칙 활용} 取るに足りない;つまらない。

다투다

<1> [자동사][타동사] (地位·権力·優劣などを)争う;競う;競り合う;戦う。

<2> [자동사][타동사] (是非·利害關係をめぐって)争う;もめる;ごたごたする;いがみあう;言い争う;論争する。

고함-치다 [高喊-]

[자동사] 大声で怒鳴る。

으르렁

<1> [부사·하다형 자동사] (猛獸が怒ってほえる声)うおおと;うおと。

<2> [부사·하다형 자동사] 非常に怒って互いのしり合うさま。

지다2

[자동사] (ひとりで)流れ出る;にじみ出る。

빚-지다

[자동사] 借金する;負債を負う。

갚다

<1> [타동사] (借りたものを)返す;返済する。

<2> [타동사] (恩などに)報いる;応える。

에릭 블루멘탈. Erik Bluementhal

2010년 4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.(4,569조회)

어루만짐
いたわり

그녀가 나를 아주 유심히
彼女が私をととてもじつりと

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.
見守っていた事実を気づいた

그녀는 내 팔을 어루만지거나 목을 긁어주면
彼女は私の腕をいたわったり、首にしがみつけば

내가 차분해진다는 걸 알아차렸다. 그녀는 또
私が落ち着くことを気づいた。彼女はまた

내 머리를 긁어주고 내 귀를 문질러주었다.
私の頭にしがみついて、私の耳をもんでくれた。

그녀의 그런 어루만짐에 나는 편안해졌고,
彼女のそのいたわりに、私は平穩になって

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줄었다. 전에는
そわそわして落ち着かないことが少なくなった。以前には

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
一度も経験したことのない

기쁨과 고요가 있다.
喜びと静寂があった。

- 존 엘더 로빈슨의《나를 똑바로 봐》중에서 -
- ジョン・エルダー・ロビンソンの〈私をちゃんと見て〉より -

* '아스퍼거 증후군'이라는 난치병 환자의 체험글입니다.
* 'アスペルガー症候群'という、難病患者の体験文です

유심히 지켜보고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고
じつりと見守って、いたわることだけでも平穩にしてくれて

아픈 몸과 마음에 기쁨과 고요가 찾아옵니다.
痛いからだと心に喜びと静寂がやってきます。

'건강하다'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
'健康だ'という人も同じです。

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깊이 멎들고
表面は完全に見えても、中は深く傷を受けて

지쳤을 때 누군가 사랑과 정성으로
疲れたとき、誰かが愛と、誠意で

지켜보고 어루만지면 다가오던
見守って、いたわれれば近づいてきた

병도 한걸음 물러갑니다.
病氣も一歩下がって行きます。

기쁨과 고요가 옵니다.
(代わりに)喜びと静寂が来ます

고요

<1> [명사] 静かなこと;静けさ;静寂。
<2> [명사] 風力階級のゼロ級に当たる風。

어루-만지다

<1> [타동사] 撫でさする;撫でる;さする。

<2> [타동사] 労わる;慰める。

유:심-히 [有心-]

[부사] つらつら;つくづく。

눈치-채다

[타동사] 気づく;感じ取る;嗅ぎつける;気配をさとる。

긋어-쥐:다

[타동사] (つかみにくいものを)ひっかくようにしてつかみとる。

차분-하다

{형용사·여 불규칙 활용} 沈着だ;落ち着いている;物静かだ。

알아-차리다

<1> [타동사] (状況をよく判断して)あらかじめ注意する;予知する。

<2> [타동사] 気付く;見抜く;感付く。

문질리다

[자동사] ‘문지르다’의受動:こすられる;もまれる。

안절부절-못하다

{자동사·여 불규칙 활용} (興奮·不安·焦燥·恐怖などのために)いたたまれない;そわそわして落ち着かない;どう

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;居ても立ってもいられない;いらいらする。

줄:다

[자동사] (數量が)減る;少なくなる;小さくなる;縮む。[작은말] 줄다

체험 [體驗]

[명사·하다형 타동사] 体験。

말짱-하다

<1> {형용사·여 불규칙 활용} 欠ける所がない;完全だ;無欠だ;なんともない。

<2> {형용사·여 불규칙 활용} (体が)健全である;健康だ;丈夫だ。

멍-들다

<1> [자동사] あざが出来る。

<2> [자동사] 打撃を受ける;いたむ;むしばむ。

정성 [精誠]

[명사] 混じり気のない誠意;真心;至誠;誠;丹念。

존 엘더 로비슨(John Elder Robison)

2010년 4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.(347조회)

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.
毎週土曜日には、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。

오늘은 박은미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.
今日は、パク・ウンミさまから、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。

진실된 접촉
本当のふれあい

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
私たちは、どの時より

많이 만나고 '접촉'하며 살아가지만
たくさん出会う、'ふれあい'ながら生きていくが

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만날 수 없다. 그 어느 때보다
どの時代より、(本当のふれあいに)出会うことはできない。どの時より

더 촘촘히, 더욱 가까이, 아래위로 모여 살지만
さらにぎっしり、いっそう近く、上と下で集まって生きているが

드문드문 흩어져 살았던 그 옛날보다
ぼつりぼつりばらばらに暮らした、昔より

더 멀리 있는 오늘의 이웃이 슬프다.
さらに離れている今日の隣が悲しい。

- 강준민의《표현의 능력》중에서 -
- カン・ジュンミンの〈表現の能力〉より -

*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만나
* どの時よりたくさんの人と出会う、

다양하게 체험하고 자극적인 감각 속으로 빠져들지만,
たくさん経験して、積極的な感覚の中に入っているが

그 어느 시대보다 '진실된 접촉'이 귀하고 어렵습니다.
どの時代より'本当のふれあい'が貴重難しいです。

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
時間と空間の限界をこえて、望むことは何でも

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이지만
いつでも、味わうことができる世の中だが

진짜 '접촉'의 공간을 잃은 듯해
本当の'ふれあい'の空間を忘れているようで

참 아쉽습니다.
とても、惜しいです。

좋은 글 주신 박은미님께
いい文章を書いてくださったパク・ウンミさまに

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.
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。

접촉 [接觸]

[명사·하다형 자동사] 接觸。

<1> [명사·하다형 자동사] 觸ること;触れること。

촘촘-히

[부사] 織り目細かく;ぎっしりと。

드문-드문

<1> [명사·하다형 형용사] (時間的に)間をおいて;ときどき;たまに;時たま。

<2> [명사·하다형 형용사] (空間的に)まばらに;ところどころ;ちらほら;ぽつりぽつり。

흩다

[타동사] (集まったものを)散らす;散らかす;ばらばらにする。

누리다1

[타동사] (富貴·長寿などを)享受する;味わい楽しむ。